

테일러드 칼라 재킷의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에 따른 앞·뒷목너비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

최진희

전주대학교 전통패션문화전공 전임강사

현대는 대량생산에 의한 기성복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의 체형과 요구에 적합한 의복을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패턴제작과 소재 및 봉제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패션산업 현장에서 패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디자인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러한 패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성복계는 패턴 디자이너의 고령화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새로운 라인과 소재 특성에 적합한 패턴개발은 더더욱 불가능하며 패턴디자이너로 취업하고자 하는 인력도 점차 줄어들고 실정이다.

패턴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도 주로 신체치수를 이용한 체형연구, 원형제도법 연구 등으로 산업현장에서의 패턴과 교육에서의 패턴제작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분석하거나 교육에 연결시키고자 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앞으로 패션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실루엣과 다양한 소재특성에 맞는 패턴을 제작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패턴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기술과 노하우를 학생들이 쉽게 배우고 익혀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패턴제작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복 상의 아이템 중에서 테일러드 칼라 재킷의 패턴제작방법에서 있어서 산업용 패턴은 교육용 패턴과는 달리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앞·뒷목너비의 차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일러드 칼라 재킷 패턴제작에서 채택하는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에 따른 앞·뒷목너비의 치수 차이가 재킷의 실루엣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에 따라 가장 좋은 실루엣을 나타내는 앞·뒷목너비의 치수 차이를 제시한다.

테일러드 칼라 재킷의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를 B·P 5cm 위, B·P 선, B·P 16cm 아래 3가지로 나누고, 앞·뒷목너비 치수 차이도 0cm, 0.5cm, 1cm 3가지로 구분하였다. 총 9종으로 분류한 후 이에 따른 패턴제도와 머슬린으로 실험의를 제작하였다. 이를 표준바디에 착용시켜 의류학 전공자들에 의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적 분석과 정리는 SPSSWIN ver 10.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앞·뒷목너비 치수차이가 테일러드 칼라 재킷의 실루엣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앞·뒷목너비 치수 차이도 재킷의 실루엣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착의실험결과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에 따라 가장 좋은 실루엣을 나타내는 앞·뒷목너비 치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B·P 5cm 위일 때는 앞목너비 \geq 뒷목너비, 차이는 0~0.5cm였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B·P 선일 때는 앞목너비>뒷목너비, 차이는 0.5cm였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B·P 16cm 아래일 때는 앞목너비>뒷목너비, 차이는 1cm가 가장 좋은 실루엣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교육용 패턴제작방법과는 달리 테일러드 칼라 재킷은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에 따라 앞·뒷목너비의 치수 차이를 다르게 해야 실루엣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연구는 머슬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특성에 적합한 앞·뒷목너비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